

##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양상을 통해 본 사회통합의 과제\*

민무숙\*\* · 김이선\*\*\* · 주유선\*\*\*\* · 이정연\*\*\*\*\*

### 초 록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맺기 방식의 전개가 향후 이들의 한국사회 통합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문제인식하에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유형과 결혼전후의 제반 양상, 나아가 한국사회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상권과 충청권 8개 시군에 거주하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 5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맺고 있는 가까운 사람의 총수를 변수로 하여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한국인 편향형, 모국인 편향형, 균형형, 소외형의 4가지로 유형화하였고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외형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낮은 사회적 통합수준을 보였고 모국인 편향형 역시 낮은 통합수준을 보였다. 한국에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은 가족모두가 이주하지 않고 혼자 이주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 편향형이 상대적으로 한국생활만족도나 의사소통역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형 집단은 사회참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이 집단이 주변 정보나 자원 확보에 있어 유리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수준, 차별경험정도, 한국인과의 관계맺기에 대한 가족의 지지 등은 이들의 사회적 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자원 활용과 서비스 수혜정도는 기대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결혼이주여성, 사회적관계 유형, 차별경험, 한국생활만족도, 사회통합

\* 본 연구는 민무숙 (201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본 사회통합의 가능성”, (제 71차 여성정책포럼 자료집, 79-112)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 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 위촉연구원

## I. 연구 배경 및 목적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는 결혼이민자, 특히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어 교육과 같이 결혼이민자의 개인적 적응 차원에서 즉각적 문제, 자녀 양육을 위시한 가족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이에 비해, 개인적 적응과 가족관계, 나아가 사회 통합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변화양상에 대한 이슈는 아직 정책적 관심사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주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주민은 개인적, 가족적,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며, 이들의 사회통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나 기회, 사적·공적 지원에 접근하는데 있어 사회적 관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 상에서 제기되는 문제 해결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사회적 관계를 정의하고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사회적 관계가 이주자의 사회통합에 있어 지니는 중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일례로 Berry(1997)는 이주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사회적 접촉, 지지, 사회적 태도 등 사회적 관계의 제반 측면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주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연령이나 성별, 교육수준, 건강, 언어, 문화적 거리, 사회적 지위, 이주의 주요 동기 등은 이주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요인이지만, 이주자의 사회적 관계는 적응 과정 중에 발달되는 동시에 적응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특수성이 있다. 특히 사회적 관계는 다른 요인에 비해 이주사회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주자의 사회적 관계는 이주자 개인의 적응 뿐 아니라, 이주사회의 인구 구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모색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이주자의 증가가 사회적 차원에서 야기하는 다양한

편익이 있는 반면 이주자 집단의 사회적 고립은 부정적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큰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설동훈 외 2009; 김이선 외 2010: 16-20). 개인적 차원의 고립은 개인적 적응이나 가족관계 발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결국 해당자의 사회통합 진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주류 집단과의 관계는 발달하지 못한 채 이주자 공동체만을 중심으로 관계가 발달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결과이자 또 다른 차별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다문화사회의 주요한 갈등으로 변질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이주자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해결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향후 결혼이주여성이 사회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주체로서 위상을 가지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 발전시키는 주체로서 결혼이주여성의 가능성을 바라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결혼이민자에 대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사회통합에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 II. 이론적 논의: 이민자의 사회 통합과 사회적 관계

### 1. 사회통합의 자원 :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는 이주 이후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주민의 개인적, 집합적 삶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Berry(1997)은 이민자의 심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적응 내지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집단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구분해 제시하면서 두 차원 모두에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집단적 차원에서는 정착지

사회에서 종족 공동체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보다 큰 사회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적 차원에서도 인구학적 요인, 이주 관련 요인, 문화적 요인, 인성적 요인 등과 함께 사회적 지지, 적응 전략과 이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등에 따라 장기적 적응 양상과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사회적 관계는 그 자체로서 적응 과정에 있는 이민자를 지지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원될 수 있는 자원이자 그 자체가 사회통합의 전략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민자를 비롯한 개인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거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물질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가치가 있다는 점은 주로 ‘사회적 자본’ 개념을 통해 접근되어 왔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다소 제도화된 관계의 지속적인 연결망, 즉 집단 성원권의 소유와 관련된 실질적, 잠재적인 자원들의 총체로서 그 성원들에게 집합적으로 소유된 자본의 지지, ‘기대된 보상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관계에 내재된 자원에 대한 투자와 그 이용’(Lin 2000; p.786) 등으로 개념화되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주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 그것이 자원으로서 지니는 가치의 차이를 규명하고 그러한 차이가 정신 건강을 비롯한 삶의 질과 기회에 대한 접근 가능성, 사회·경제적 성취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모든 이주민 집단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사회적 자원의 수준 역시 이주민 집단 간에도 차이가 있는데(Lin 2000; p.789),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에 내재된 자원의 차이가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사회적 자본은 가치 있는 정보의 흐름을 촉진시키며 고용, 진급 등 해당자의 삶의 질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당사자의 사회적 신뢰와 정체성에도 영향력을 발휘한다.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차원을 총괄한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사회적 관계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유대와 신뢰 등 시민으로서의 심리적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도

기여한다(Lin 2001; Hagan, 1998).

이민자의 사회 통합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회적 관계는 정착지 사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연령이나 학력, 출신국적 등의 인구학적 요인, 이주 동기와 이주 과정 등은 이미 이주 이전에 상당 부분 결정되어 있어 정착지 사회가 개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반면, 사회적 관계는 이주와 함께 새롭게 재구성되는 만큼 정착지 사회의 제반 요소에 따라 변화 가능하며 그 만큼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 2. 사회적 관계의 유형과 사회통합

흔히 이주민에게 있어 종족공동체 내/외부의 연계는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종족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들로 구성된 다문화사회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는 전통적으로 종족 공동체 내의 신뢰와 공동체 간 신뢰는 상호 부정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 종족공동체 등이 결코 배타적인 구분은 아니며 서로의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 오히려 이민자 개인적 수준이나 사회 전반적 수준에서 이상적이라는 점이 여러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즉, 사회 전반적 차원에서는 동질성을 기초로 한 유대 지향적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서로 다른 종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 간의 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것이 사회통합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Putnam, 2007).

Berry(1997, 2002) 등은 종족 공동체 내/외부와 관계와 정체성에 따라 이민자 집단의 적응 전략을 유형화한 바 있다. 즉 사회통합 수준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한 작업에서 종족 공동체 내/외부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유대 지향적 사회적 자본과 가교 지향적 사회적 자본 모두를 지니는 것이 사회통합에 있어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Berry는 이민자가 출신문화를 유지하고 이를 중시하는 사회적 관계에 집중

하는지, 새로운 환경에서 대면하는 다른 집단과의 접촉과 참여를 중시하는지에 따라 이민자의 적응 전략을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구분·분리(separation·segreg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통합 전략이란 출신문화를 유지하고 종족 공동체 내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종족 공동체 외부와의 관계도 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도 수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주변화는 종족 공동체 내부나 외부 그 어느 관계도 발전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동화와 구분·분리는 종족 공동체 내/외부 중 어느 한쪽하고만 관계를 발전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종족 공동체 외부와의 관계는 무시한 채 내부와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경우를 구분·분리라고 칭하며, 반면 종족 공동체 내부와의 관계는 간과하고 공동체 외부, 특히 주류사회와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경우를 동화로 정의한다(Berry 1997).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관계 내지 정체성 유형이 사회통합과 유의미한 관계를 지닌다는 점이다. 관련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종족 공동체 내부와 공동체 간 관계 모두가 발달한 집단이 사회통합 면에서 가장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사회통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그 어느 쪽과도 관계를 발달시키지 못한 채 ‘주변화’된 이주자들이며, 이주자 공동체와 주류집단 중 어느 한쪽 중심으로 관계가 발달한 이주자들이 중간 수준의 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Berry & Kim, 1988; Berry & Sam, 1997; Berry, 1997: 25; Berry & Poortinga et. al., 2002 재인용).

### 3. 한국사회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와 그 영향

결혼이민자는 새로운 사회에서 상당기간 정주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이민자 집단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결혼이민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가족, 친구 관계를 포함해 관계망 전반을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가족단위 이민자에 비해 사회적 관계 형성 구조 자체가 매우 복잡하며, 가족내 젠더 요인 역시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관계 양상을 다르게 하는 요인이 된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연구경향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면접 중심의 관계망 형태에 대한 시론적인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유형이 있다. 이용균(2007)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가족 의존적이고 가족 외부에서는 이주민, 특히 동일 출신국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국인들과의 관계망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황정미(2010)는 기관이나 단체에 (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나 활동가 등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30명의 결혼이주여성을 인터뷰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의 모습을 단순히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즉 소수의 결혼이주여성을 인터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양적으로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관계 형성과 관련된 개개인의 경험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에서 가족, 한국인 친구, 본국인 친구가 차지하는 수적인 비중에 따라 접근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양상을 보는 연구 이외에 사회적 관계가 결혼이주여성 개인이나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왔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과의 관계가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어 왔다(Frone et al., 1992; Gettman et al., 1998; 김현숙 외 2010, 재인용). 반면, 가족 이외의 사회적 관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한국인 이웃과의 관계가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제시되는 한편(이민아, 2010) 오히려 부정적 상호작용(지나친 간섭, 반대, 비난 및 탓하기, 잘못된 도움, 과도한 요구, 약속 불이행, 이용하려 들)으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박미정 외 2009). 본국출신 동료와의 사회적 관계가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서로 다른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박미정 외, 2009; 이민아, 2010).

이처럼 결혼이민자가 가족 외부와 맺는 사회적 관계가 갖는 효과에

대해서는 서로 모순된 연구 결과가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특정 지역의 소수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방법론적 제한점 이외에 사회적 관계가 미치는 효과를 스트레스나 정서적 지지, 생활만족도 등 지극히 가변적인 개인의 정서적 차원에만 한정시켜 접근했다는 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사회적 관계가 전반적인 사회통합 차원에서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이들의 사회와의 통합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인적 심리적 안녕감의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양 문화에 대한 적응을 나타내는 문화적 유능감(채정민, 2003, 한성열, 2003)과 사회생활참여도와 같은 사회적 차원으로 보다 확장하고자 한다. 나아가 한국인 또는 자국 출신과의 관계를 각각 분리해 개별적으로 다루는 한계에서 벗어나 두 축 간의 상호 관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 III. 연구 내용 및 조사 설계

#### 1. 연구 내용 및 방법

##### 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양상 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전반적 실태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결혼 전후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가 재구성되는 양상, 그리고 이들이 한국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주요 통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 2) 사회적 관계 유형 비교 및 관련 요인 파악

앞서 결혼이주여성이 맺는 사회적 관계의 전반적 양상을 파악한 뒤,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한국인과 모국출신인과의 관계를 조합하여 총 4가지 유형(사회적 고립형, 편향적 관계 : 모국인 위주 유형, 한국인 위주 유형, 균형적 관계 발달 유형)으로 유형화하고자 하였다(그림 1). 그리고 이들의 사회적 관계유형을 달리하게 하는 잠정적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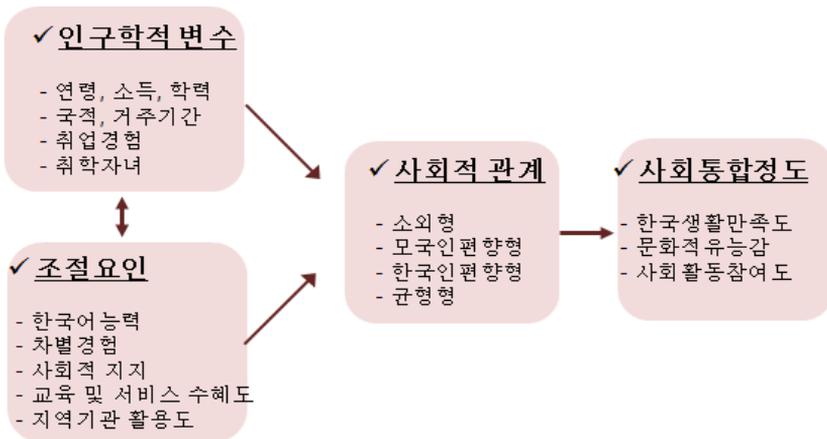
따른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 및 한국 거주기간 등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그림 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유형 분류(안)

### 3) 사회적 관계 유형과 한국사회 통합과의 관계 분석

마지막으로 각 사회적 관계 유형에 따라 한국사회와의 통합 정도가 달리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사회 통합지표로 정서적 차원인 한국 생활 만족도, 문화적 차원이면서 역량개념을 포함한 문화적 유능감, 나아가 사회적 차원으로 지역사회내에서 단체 및 모임 참여도의 변수를 설정하였다.



(그림 2) 조사 개념도

## 2. 조사 대상 표집

설문조사의 대상자의 국적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위 5개국인 중국한족(조선족 제외),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에 한정하였다. 중국인 중 조선족의 경우 한국내 가족 및 친척이 다수 거주함으로써 다른 국가 출신들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 독자성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관계 요인 추출에 조사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설문조사 대상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결혼이주여성에 한정하였다. 2년 미만 초기 입국자는 아직 정착적응 및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여서 가족 외부로의 사회적 관계가 발달하기는 이른 시기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조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적에 따른 연령별, 지역별 구성 등에 대한 모집단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집단에 대한 임의표집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일대 일 면접이 가능한 조사가 원활히 될 수 있는지 사전에 탐색한 결과, 경상권, 충청권 8개 시·군에 거주하는 거주 540명을 대상으로 표집이 이루어졌다. 결혼이주여성 거주인구가 600 ~ 1,400여명인 4개 시 지역(청주, 논산, 보은, 연기)에서 370명, 결혼이주여성 인구가 100 ~ 300여명인 군 지역(구미, 양산, 의성, 영양)에서 170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이 실시되었다.

## 3. 주요 변인

### 1) 조절요인

#### (1) 한국어 능력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총 4가지 영역(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에서 5점 척도(1점: 매우 잘 한다 ~ 5점: 매우 서툴다)를 사용하여, 자신의 실력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93이며, 후에 척도 점수가 높아질수록 응답자의 한국어 능력이 높아지도록 역산하였다.

## (2) 한국에서의 차별경험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받은 차별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5개 문항을 통해 이를 살펴보았으며,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한국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등이 있다. 이때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 ~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사용하였고, 후에 역산을 통하여 점수가 높아질수록 차별경험이 증가하도록 치환하였다.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14였다.

## (3) 가족의 지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형성을 지지해주는 가족의 지지를 알아보기 위해 총 4가지 문항을 사용하여 이를 살펴보았다. 예시문항으로는 “나의 가족은 내가 한국인과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등이 있으며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 ~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다.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506이며, 후에 척도 점수가 높아질수록 가족의 지지가 증가하도록 역산하였다. 이중 두 문항은 한국인과의 교류를 지지하는 문항으로, 두 문항은 모국인과의 교류를 지지하는 문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4) 지역자원 활용도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제공받는 지역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거주 지역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수혜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어 교육”, “가족생활 이해 및 교육 상담”, “자녀교육 관련 상담 및 지원”, “한국생활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직업 교육 훈련”, “일자리 연계 서비스”로 총 6가지 각 영역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자원 활용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총 3점 척도(0점: 전혀 받아본 적 없다 ~ 2점: 여러 번 받아본 적 있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5) 결혼이주여성 지원기관 이용 빈도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해주는 지역기관(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빈도를 알아보았다. 이때 4점 척도(1점: 이용한 적이 거의 없다 ~ 4점: 일주일에 1~2번 이용한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 2) 종속변인

### (1) 한국생활 만족도

결혼이주여성의 현재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총 5개 문항을 통해 이를 측정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의 결혼생활이 불만스럽다” 등이 있으며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 ~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009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한국생활의 만족도를 가족생활 영역에서만 측정했던 것을 보완하여, 본 조사에서는 결혼생활 외에도 이웃관계, 지역환경, 자신의 위치와 역할, 경제수준의 5개 영역에서 보다 다양하게 생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며,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25였다.

### (2) 한국사회 문화적응 유능감<sup>1)</sup>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 지표의 하나로 문화적 유능감(cultural efficacy)을 조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양문화 유능감 척도(채정민, 2003, 한성열, 2003)를 결혼이주여성의 실정에 맞게 수정·추가하였고, 연구진들에 의하여 문제해결 유능감 문항을 추가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유능감을 알아보았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5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통해 이를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유능감이 높아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요인분석을 통해 한 문항을 제외한 총 19개의 문항을 크게 3가지 하위척도(한국인과 의사소통 유능감 / 한국사회 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 /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 유능감)로 분류하였다. 각 하위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순서대로 .682, .794, .749였다.

1) 문항별 상세 내용은 지면상 김이선, 민무숙 외(2011)을 참조

### (3) 사회생활 참여도

이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참여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변수로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의 수를 질문하였다.

## IV. 조사결과

연구진에 의하여 개발된 설문지는 국가별로 모두 자국어로 번역하였고, 예비조사를 통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나 문제점이 발견된 문항 등은 다시 수정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 본 조사가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거된 질문지중 응답지가 부실한 22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518부를 통계분석에서 사용하였다. 기초통계분석 이후 집단차이 검증, 상관관계 분석, 신뢰도 검증 및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유형과 사회통합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1. 조사대상 및 기초분석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먼저, 국적별 비율은 베트남 출신이 23.4%로 가장 높았고, 중국 한족 23%, 일본 20.7%, 필리핀 18.7%, 캄보디아 출신은 14.3% 순이었다. 결혼이주 경력이 비교적 짧은 캄보디아 출신을 제외하면, 조사 응답자는 국적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

조사 응답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78.8개월로 나타났다. 한국에 3년 이상~5년 미만 거주한 경우가 30.5%로 가장 많았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의 응답자가 거주기간 5년 미만에 60% 넘게 분포해 있는 반면, 일본 출신의 응답자는 10년 이상인 경우가 64.5%였다.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약 75%나 되는 비중을 차지고 있었으며,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 20대 비율이 각각 전체의 76.9%, 77.0%를 차지하는 등 연령대가 상당히 낮게 분포돼 있었다.

조사 응답자의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약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이 38.6%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이상 30.5%,

중학교 졸업 23.9%, 초등학교 이하 6.9% 순이었다. 특히, 필리핀과 일본 출신에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 비율이 다른 국적에 비해 높았으며,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 초졸 이하 비율이 29.7%로 전체 평균(6.9%)보다 크게 높았다.

직업 경험과 관련된 질문에서,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2.3%로 가장 많았으며, '일한 경험이 한번도 없다' 35.1%, '과거 일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안한다' 는 22.6%였다. 월소득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7.5%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미만 21.8%을 차지하였다. 중국과 일본 출신 응답자에서 월소득 300만 원 이상의 비율이 각각 16.0%, 15.9%로 다른 국적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비율이 35.1%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다.

또한, 조사 응답자는 대부분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비율은 약 85% 수준이었고, 자녀가 없는 비율은 14.9%였다.

〈표 1〉 조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세부 수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전체
		빈도 (%)					
거주 기간	2년 ~ 3년 미만	34 (28.6)	37 (30.6)	28 (28.9)	1 (0.9)	21 (28.4)	121 (23.4)
	3년 ~ 5년 미만	42 (35.3)	44 (36.4)	15 (15.5)	14 (13.1)	43 (58.1)	158 (30.5)
	5년 ~ 7년 미만	19 (16.0)	23 (19.0)	17 (17.5)	4 (3.7)	7 (9.5)	70 (13.5)
	7년 ~ 10년 미만	13 (10.9)	15 (12.4)	14 (14.4)	19 (17.8)	3 (4.1)	64 (12.4)
	10년 이상	11 (9.2)	2 (1.7)	23 (23.7)	69 (64.5)	0 (0.0)	105 (20.3)
연령	20대	42 (35.3)	93 (76.9)	36 (37.1)	1 (0.9)	57 (77.0)	229 (44.2)
	30대	56 (47.1)	26 (21.5)	37 (38.1)	23 (21.5)	16 (21.6)	158 (30.5)
	40대	19 (16.0)	1 (0.8)	19 (19.6)	64 (59.8)	1 (1.4)	104 (20.1)
	50대	2 (1.7)	1 (0.8)	5 (5.2)	19 (17.8)	0 (0.0)	27 (5.2)
학력	초등학교 이하	4 (3.4)	7 (5.8)	3 (3.1)	0 (0.0)	22 (29.7)	36 (6.9)
	중학교	38 (31.9)	59 (48.8)	2 (2.1)	0 (0.0)	25 (33.8)	124 (23.9)
	고등학교	50 (42.0)	43 (35.5)	33 (34.0)	48 (44.9)	26 (35.1)	200 (38.6)
	대학교 이상	27 (22.7)	12 (9.9)	59 (60.8)	59 (55.1)	1 (1.4)	158 (30.5)

직업 경험	현재 일하고 있음	36 (30.3)	52 (43.0)	55 (56.7)	53 (49.5)	23 (31.1)	219 (42.3)
	과거에는 있으나 현재는 안 함	34 (28.6)	22 (18.2)	16 (16.5)	35 (32.7)	10 (13.5)	117 (22.6)
	일한 경험 없음	49 (41.2)	47 (38.8)	26 (26.8)	19 (17.8)	41 (55.4)	182 (35.1)
월소득	100만원 미만	18 (15.1)	25 (20.7)	24 (24.7)	20 (18.7)	26 (35.1)	113 (21.8)
	100만~200만원	38 (31.9)	62 (51.2)	32 (33.0)	36 (33.6)	26 (35.1)	194 (37.5)
	200만~300만원	36 (30.3)	18 (14.9)	17 (17.5)	26 (24.3)	4 (5.4)	101 (19.5)
	300만원 이상	19 (16.0)	6 (5.0)	5 (5.2)	17 (15.9)	3 (4.1)	50 (9.7)
	모름	8 (6.7)	10 (8.3)	19 (19.6)	8 (7.5)	15 (20.3)	60 (11.6)
혼인 상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음	117 (98.3)	111 (91.7)	93 (95.9)	104 (97.2)	74 (100.0)	499 (96.3)
	별거중	1 (0.8)	2 (1.7)	1 (1.0)	1 (0.9)	0 (0.0)	5 (1.0)
	사별 또는 이혼	1 (0.8)	8 (6.6)	3 (3.1)	2 (1.9)	0 (0.0)	14 (2.7)
취학 자녀 여부	없음	21 (17.6)	18 (14.9)	15 (15.5)	9 (8.4)	16 (21.6)	79 (15.3)
	있음	73 (61.3)	93 (76.9)	53 (54.6)	95 (88.8)	48 (64.9)	362 (69.9)
	무자녀	25 (21.0)	10 (8.3)	29 (29.9)	3 (2.8)	10 (13.5)	77 (14.9)
전 체		119 (100.0)	121 (100.0)	97 (100.0)	107 (100.0)	74 (100.0)	518 (100.0)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조절변수 및 종속변수의 기초분석 결과 다음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한국어실력은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차별경험은 필리핀과 중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받는 정도는 중국, 필리핀이 높게 나온 반면, 캄보디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각종 교육서비스 수혜도 및 지역내 각종 공공기관 이용빈도는 일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활만족도는 중국과 베트남이 높고, 필리핀과 캄보디아 여성이 낮았으며, 문화적 유능감 역시, 일본과 캄보디아가 가장 낮았다. 이들의 각종 단체 및 모임 참여로 본 사회생활의 참여도는 필리핀과 일본,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나 이들의 거주기간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각종 변수의 기초분석 결과

단위 : 평균(표준편차)

문항(최저~최고점수)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전체
한국어실력(1~5)	2.9(.95)	2.9(.59)	3.0(.76)	3.0(.59)	3.0(.71)	3.0(.74)
차별경험(1~5)	2.6(.76)	2.9(.93)	2.5(.65)	2.7(.78)	2.7(.63)	2.7(.78)
가족지지(1~5)	3.8(.66)	3.6(.65)	3.8(.64)	3.6(.63)	3.4(.64)	3.7(.66)
서비스 수혜도(1~3)	1.8(.51)	1.7(.47)	1.8(.51)	1.6(.41)	1.8(.37)	1.8(.47)
기관이용빈도(1~4)	2.6(1.3)	2.5(1.2)	2.5(1.2)	2.0(1.1)	2.5(1.2)	2.4(1.2)
한국생활만족도(1~5)	3.6(.75)	3.6(.90)	3.3(.69)	3.4(.70)	3.2(.78)	3.4(.78)
문화적 유능감(1~5)	3.3(.50)	3.3(.46)	3.4(.59)	3.2(.42)	3.0(.44)	3.3(.50)
사회생활참여도(0~7)	.95(.96)	.93(.94)	1.6(1.3)	1.7(1.1)	1.3(1.4)	1.3(1.2)

## 2. 결혼이주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

결혼이주여성은 결혼 이후 새로운 사회 적응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들의 사회적 관계가 결혼이주를 계기로 어떻게 달라지며, 어떠한 통로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또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기대와 영역별 사회적 자원의 구성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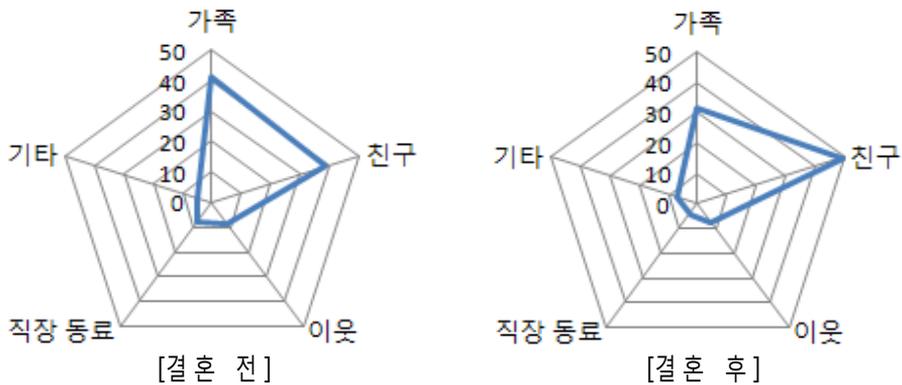
### 1) 사회적 관계의 전반적인 변화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을 전후해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게 된다. 아래 <표 3>과 [그림3]을 보면 이들이 결혼 전에 가깝게 지낸 사람 수는 평균 11.1명이었으나, 결혼 후에는 9.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친구만 제외하고, 가족, 이웃 등 다수의 사회적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크기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결혼을 전후해 사회적 관계의 세부적 구성 역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분포를 보면 가족의 비중은 결혼 후에 감소하지만(41.1% → 32.0%), 친구의 비중은 증가한 (38.3% → 49.7%)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관계가 한국생활 적응이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인 점을 고려해보면, 결국 이들이 소유한 사회적 자원의 양이 감소하고, 그 관계의 내용 역시 달라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결혼 전후로 변화한 사회적 관계 크기 (단위: 명)

		본국(결혼 전)			한국(결혼 후)		
		평균	표준편차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비중 (%)
각 사회적 관계별 명수	가족	3.83	3.65	41.1	2.57	3.17	32.0
	친구	3.79	4.66	38.3	3.95	4.24	49.7
	이웃	1.58	3.84	8.4	0.93	2.64	7.4
	직장 동료	1.14	2.49	7.4	0.43	1.46	3.9
	기타	0.75	2.25	4.8	0.66	1.97	7.0
가까운 사람 총수		11.08	11.52	100.0	9.29	9.43	100.0



〔그림 3〕 결혼이주 전후 사회적 관계 구성 비율의 변화 (단위: %)

다음 <표 4>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국적별(모국인, 한국인, 기타외국인)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를 보여준다. 모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8명으로, 한국인 3.8명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모국인과의 관계가 결혼이주여성에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 한국에서의 사회적 관계 크기  
(단위: 명)

		평균	표준편차
한국의 가까운 사람 총수		9.29	9.43
모국인	합계	4.75	5.21
	본인 가족	0.74	1.45
	친구	3.15	3.43
	이웃	0.36	1.40
	직장 동료	0.21	1.12
	공공기관 종사자	0.09	0.51
	기타	0.20	1.30
한국인	합계	3.79	4.88
	남편 가족	1.83	2.54
	친구	0.79	1.81
	이웃	0.57	1.83
	직장 동료	0.22	0.8
	공공기관 종사자	0.26	0.84
기타 외국인		0.76	2.00



〔그림 4〕 한국에서의 주요 사회적 관계 유형  
(단위: 명)

특히,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국인 친구가 약 3.2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남편 가족 1.8명, 한국인 친구 0.8명, 본인 가족 0.7명, 한국인 이웃 0.6명 순이었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재구성하는 사회적 관계에서 모국인 친구가 1순위, 남편 가족이 2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2) 거주기간 및 국적에 따른 사회적 관계 변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수가 거주기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다음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한국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모국인과 한국인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모국인이 한국인에 비해 다소 많았으며,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모국인과 한국인 연결망 모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정착초기인 2~3년 사이 사회적 관계가 비교적 있다가 3~5년 사이 약간 감소한 이후, 5년 이후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 5〉 거주기간에 따른 사회적 관계 크기 변화

(단위: 명)

	모국인		한국인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3년	4.1	4.0	4.1	5.6	8.2	7.9
3~5년	4.0	5.5	3.0	4.5	7.0	8.7
5~7년	4.8	5.1	3.9	5.0	8.7	8.5
7~10년	6.0	5.9	4.3	4.3	10.3	9.7
10년이상	5.8	5.5	4.2	4.6	10.0	8.6
전체	8.5	8.6	7.8	9.5	10.1	9.2

거주기간에 따라 사회적 관계 크기가 변화하는 양상에 국적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래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적별로 보면, 중국과 필리핀, 일본이 7~10년 정도시기에 사회적 관계가 가장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반면,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5~7년정도 시기까지가 가장 관계가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사회적 관계의 폭을 보면, 일본(10.5명)과 필리핀(10.1명)이 가장 사회적 관계가 넓고, 그 뒤를 중국(8.5명)과 베트남(7.8명)이 잇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캄보디아(6.5명)가 가장 좁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 국적별 거주기간에 따른 사회적 관계 크기의 변화

(단위: 명)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3년	7.0	6.3	7.2	5.6	11.8	10.0	4.0	-	7.3	9.8
3~5년	6.7	4.5	8.0	12.7	7.5	5.5	9.4	12.4	5.5	5.8
5~7년	5.6	3.6	9.6	9.8	10.9	10.8	5.5	3.1	10.6	7.5
7~10년	10.3	7.7	6.2	5.2	12.3	12.6	14.4	12.3	7.0	3.6
10년이상	11.8	12.9	6.0	6.2	7.8	6.2	10.6	8.5	0.0	-
전체	8.5	8.6	7.8	9.5	10.1	9.2	10.5	9.3	6.5	7.3

### 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유형

조사대상인 결혼이주여성을 사회적 관계 크기와 한국인 및 모국인 비율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한국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가족을 포함해 2명 이하인 경우는 전부 소외형으로 분류했으며, 사회적 관계 크기가 3명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인 및 모국인 비율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였다. 조사대상을 유형화한 구체적인 기준은 <표 7>과 같다. 3명 이상인 경우, 모국인수가 전체 가깝게 지내는 사람중 모국인 비율이 40%이하이면 한국인 편향형으로, 60%이상이면 모국인 편향형으로 구분하였고, 40%초과~60%이하를 차지하면 양쪽 국가 모두와의 균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화 결과, 모국인 편향형의 비율이 37.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형이 28.2%로 그 뒤를 이었으며 한국인 편향형은 18.7% , 소외형은 15.8% 수준이었다.

〈표 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유형화

사회적 관계 유형	연결망 크기	모국인 비율*	빈도 (%)
소외형	2명 이하	전체	82 (15.8)
한국인 편향형	3명 이상	0.4 이하	97 (18.7)
균형형	3명 이상	0.4초과 - 0.6이하	146 (28.2)
모국인 편향형	3명 이상	0.6 초과	193 (37.3)

\* 모국인 수를 전체 연결망 크기(기타 국적 제외)로 나눈 비율

<표 8>에서 보듯이 사회적 관계 유형별로 세부구성을 살펴보면, 한국인 편향형이 본국과 한국에서 모두 사회적 관계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국에서 가까이 지낸 사람 수는 한국인 편향형이 평균 13.2명으로 가장 컸으며, 균형형 12.5명, 모국인 편향형 12.0명 수준이었고, 소외형은 3.9명이었다. 한국에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 수 역시 한국인 편향형이 11.6명으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은 균형형으로 약 11명, 모국인 편향형 10.1명이었고, 소외형은 1.5명 수준이었다. 소외형은 한국뿐 아니라 본국에서도 사회 연결망의 크기가 다른 유형에 비해 현저히 작았다.

흥미롭게도, 모국인 편향형의 경우 한국에서 가깝게 지내는 모국인 7.02명중 절반이 넘는 4.68명이 모국인 친구였으며, 한국인 편향형은 가깝게 지내는 한국인 8.05명중 절반이 넘는 4.27명이 남편 가족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외형의 경우 가깝게 지내는 한국인이 채 1명도 되지 않고, 특히 남편 가족은 0.37명에 불과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8> 사회적 관계 유형별 세부 구성**

(단위: 명)

	소외형	모국인 편향형	한국인 편향형	균형형	전체
본국의 가까운 사람 총수	3.88	12.01	13.18	12.50	11.08
한국의 가까운 사람 총수	1.50	10.14	11.59	11.01	9.29
한국의 가까운 사람_모국인	0.93	7.02	2.89	5.12	4.75
한국의 가까운 사람_한국인	0.54	2.22	8.05	4.85	3.79
한국의 가까운 모국인_친구	0.71	4.68	2.07	3.23	3.15
한국의 가까운 한국인_남편가족	0.37	0.97	4.27	2.18	1.83

사회적 관계 유형별 분포를 국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중국 한족의 경우 균형형이 3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모국인 편향형은 29.4%로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 출신은 모국인 편향형이 38%로 가장 높았고, 그 뒤는 소외형으로 23.1% 수준이었다. 필리핀 출신은 균형형이 45.4%로 압도적인 수준이었고, 그 다음은 모국인 편향형으로 27.8%였다. 일본 출신의 경우 모국인 편향형이 52.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는 균형형으로 27.1% 수준이었다. 캄보디아 출신은 모국인 편향형이 39.2%로 가장 높았고, 소외형도 29.7%나 되었다.

전반적으로 소외형은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 사이에서 비교적 많고 중국인 출신은 한국인 편향형, 필리핀 출신은 균형형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모국인 편향형이 두드러지게 많다는 것이다.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에는 한국생활기간이 비교적 짧고 사회적 교류에 대한 가족들의 지지도 낮은 것 등이 사회적 관계 발달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인은 비교적 오랜 기간 한국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삶에서 종교기관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고 따라서 사회적 관계망 역시 종교기관을 통해 형성된 모국인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 관계 유형별로 평균 거주기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거주기간이 길수록 균형형이,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소외형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균형형의 경우 평균 거주기간이 84.6개월

로 가장 길었으며, 모국인 편향형은 82.6개월, 한국인 편향형은 73.2개월, 소외형은 66.2개월로 가장 짧았다. 여기서 모국인 편향형의 거주기간이 길게 나타난 것은 한국 거주기간이 긴 특징을 지닌 일본 출신의 응답자들이 이 집단에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9〉 국적, 거주기간 등 사회적 관계 유형별 분포

(단위: %, 개월)

	소외형	모국인 편향형	한국인 편향형	균형형	
국적 (%)	중국(한족)	11.8	29.4	25.2	33.6
	베트남	23.1	38.0	17.4	21.5
	필리핀	9.3	27.8	17.5	45.4
	일본	8.4	52.3	12.1	27.1
	캄보디아	29.7	39.2	21.6	9.5
	전체	15.8	37.3	18.7	28.2
거주기간(개월)	전체	66.2	82.6	73.2	84.6

### 3. 사회적 관계 유형과 사회통합의 관계

위에서 살펴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는 한국사회와의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절에서는 사회통합의 지표로 정서적 차원(한국생활만족도), 문화적 차원(문화적 유능감), 그리고 사회적 차원(정기 참여 단체/모임 수)을 설정하고, 사회적 관계 유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 1) 사회적 관계 유형과 한국생활 만족도

<표 10>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만족도를 결혼생활, 이웃관계, 지역환경, 위치 및 역할, 경제수준으로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이웃관계 만족도는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경제수준 만족도는 3.09로 가장 낮았다. 사회적 관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인 편향형의 만족도가 3.71로 가장 높았고, 균형형이 3.47로 그 다음이었으며, 모국인 편향형 3.36, 소외형이 3.24로 가장 낮았다.

**〈표 10〉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만족도** (단위: 점)

	결혼생활	이웃관계	지역환경	위치 및 역할	경제수준	전체
평균	3.46	3.57	3.55	3.51	3.09	3.44
표준편차	1.108	.874	1.020	.993	1.087	.782

사회적 관계 유형에 따른 한국생활 만족도의 차이가 다른 기타 변수들(인구학적 특성 및 한국생활 경험 등)의 영향력을 통제하고도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1>). 먼저, 인구 사회학적 변수들을 살펴보면,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월소득이 높을수록 한국생활 만족도는 높았다. 또한 중국(한족)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은 베트남 출신에 비해 한국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매개변수를 살펴보면,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한국인과의 교류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강할수록 한국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관계 유형 분석에서는 한국인 편향형 집단이 소외형 집단에 비해 한국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표 11〉 한국생활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3.270	.196		3.210	.313		3.058	.322		
연령대	-.125	.058	-.153*	-.164	.054	-.199**	-.154	.054	-.188**	
거주기간	.000	.001	-.008	.001	.001	.051	.000	.001	.032	
국적	베트남	-.221	.107	-.126*	-.138	.100	-.079	-.112	.100	-.063
	필리핀	.113	.119	.056	.260	.110	.128*	.285	.110	.140**
	일본	-.215	.131	-.118	-.199	.122	-.109	-.167	.123	-.092
	캄보디아	-.166	.130	-.074	-.066	.120	-.029	-.060	.120	-.027
학력	.056	.048	.067	.021	.045	.025	.021	.045	.025	
취업상태	취업 중	.090	.084	.059	.082	.078	.054	.076	.077	.050
	과거 취업	-.057	.096	-.031	.018	.089	.010	.023	.088	.013
가정 월소득	.177	.039	.218*	.141	.037	.174***	.140	.037	.172***	
취학자녀 유무	-.038	.085	-.023	-.150	.079	-.0891	-.116	.080	-.069	
한국어 능력				-.030	.047	-.029	-.026	.047	-.025	
차별경험				-.268	.042	-.279***	-.260	.042	-.271***	
한국인 교류 지지				.227	.052	.222***	.226	.051	.220***	
모국인 교류 지지				.065	.049	.066	.060	.049	.061	
교육및 서비스 수혜도				.010	.012	.035	.010	.012	.037	
지원기관 이용 빈도				-.037	.027	-.059	-.037	.027	-.061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모국인 편향형							.070	.097	.045
한국인 편향형							.278	.110	.144*
균형형							.079	.104	.047
F-value	5.276***			9.380***			8.458***		
R-Square	.118			.271			.285		
Adj R-Square	.096			.243			.251		
R-Square Change	.118***			.153***			.013*		

† p<.10, \* p<.05, \*\* p<.01, \*\*\* p<.001

국적: 중국(한족)기준, 취업상태: 취업경험 전무 기준, 연결망 유형: 소외형 기준

## 2) 사회적 관계 유형과 문화적 유능감

사회적 관계 유형에 따른 문화적 유능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문화적 유능감을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유능감, 사회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 일상생활의 문제해결 유능감 등 세 차원으로 구분해 분석했다(<표 12>).

먼저, 한국인과의 대화 시 자신감과 관련된 의사소통 유능감의 경우, 한국인 편향형 집단(3.21점)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균형형 집단(3.05점), 모국인 편향형(2.9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외형 집단(2.91점)은 대면 및 소통 유능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국생활 적응, 한국 풍습이나 가치관 이해 등에 대한 자신감을 알아보는 사회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의 경우 균형형(3.53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한국인 편향형(3.49점), 모국인 편향형(3.31점), 소외형(3.23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길찾기, 병원, 공공기관 이용 등)에 대한 해결 자신감을 보여주는 일상생활의 문제해결 유능감에서는 균형형 집단(3.44점)이 가장 높았고, 모국인 편향형(3.37점), 한국인 편향형(3.25점), 소외형(3.22점)이 그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균형형과 한국인 편향형이 다른 사회적 관계 유형보다 문화적 유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외형은 세 영역 모두에서 가장 낮은 유능감을 보였다. 다음은 사회적 관계 유형에 따른 문화적 유능감의 차이가 다른 변수들(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한국생활 경험 변수)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2〉 사회적 관계 유형별 문화적 유능감

(단위: 점)

	소외형	모국인 편향형	한국인 편향형	균형형	전체 평균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유능감	2.91 (0.67)	2.99 (0.67)	3.21 (0.61)	3.05 (0.71)	3.04 (0.68)
사회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	3.23 (0.65)	3.31 (0.65)	3.49 (0.56)	3.53 (0.62)	3.39 (0.63)
일상생활의 문제해결 유능감	3.22 (0.76)	3.37 (0.76)	3.25 (0.79)	3.44 (0.74)	3.34 (0.76)

## (1) 사회적 관계 유형과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유능감

<표 13>은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유능감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의사소통 유능감이 높아졌다. 국가별로는, 중국 한족이 다른 국적에 비해 의사소통 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에 비해 의사소통 유능감이 높았다.

또한, 매개변수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차별받은 경험이 적을수록 의사소통 유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 유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인 편향형 집단이 소외형 집단에 비해 의사소통 유능감이 높았다.

〈표 13〉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유능감에 대한 회귀분석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상수	2.740	.165		2.943	.263		2.830	.271		
연령대	-.127	.050	-.169*	-.085	.047	-.113†	-.076	.047	-.102	
거주기간	.005	.001	.401***	.004	.001	.315***	.004	.001	.299***	
응답자	베트남	-.268	.090	-.168**	-.266	.084	-.167**	-.243	.085	-.152**
	필리핀	-.785	.100	-.434***	-.689	.092	-.381***	-.678	.092	-.375***
국적	일본	-.560	.111	-.340***	-.542	.103	-.329***	-.523	.104	-.318***
	캄보디아	-.290	.109	-.143**	-.300	.101	-.149**	-.287	.101	-.142**
응답자학력	.150	.041	.198***	.119	.038	.158**	.118	.038	.156**	
응답자 취업 중	.323	.071	.236***	.270	.066	.197***	.262	.066	.191***	
취업상태 과거 취업	.112	.081	.069	.104	.075	.064	.104	.075	.064	
가정 월소득	-.027	.033	-.037	-.037	.031	-.051	-.039	.031	-.054	
취학자녀 유무	-.041	.071	-.027	-.110	.066	-.072	-.083	.067	-.055	
한국어 능력				.205	.040	.219***	.206	.039	.220***	
차별경험				-.237	.035	-.274***	-.234	.035	-.270***	
한국인 교류 지지				.078	.043	.085†	.077	.043	.083 †	
모국인 교류 지지				-.077	.041	-.088†	-.081	.041	-.091*	
교육및 서비스 수혜도				.002	.010	.010	.003	.010	.011	
지원기관 이용 빈도				-.023	.023	-.041	-.024	.023	-.043	
모국인 편향형							.077	.082	.055	
한국인 편향형							.205	.093	.118*	
균형형							.121	.089	.080	
F-value	11.850***			14.616***			12.757***			
R-Square	.232			.369			.377			
Adj R-Square	.213			.344			.347			
R-Square Change	.232***			.137***			.008			

† p&lt;.10, \* p&lt;.05, \*\* p&lt;.01, \*\*\* p&lt;.001

국적: 중국(한족)기준, 취업상태: 취업경험 전무 기준, 연결망 유형: 소외형 기준

## (2) 사회적 관계 유형과 사회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

한국사회 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14>와 같다. 먼저, 사회 인구학적 변인의 경우, 응답자의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사회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은 높았다. 국적별로 비교해 보면, 중국 출신의 결혼이주 여성은 필리핀 출신보다는 사회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이 낮았지만, 일

본 출신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다. 매개변인을 살펴보면, 한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그리고 한국인 교류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강할수록 한국사회 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은 높았다.

한편, 사회적 관계 유형 분석에서는 한국인 편향형과 균형형의 경우 사회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이 소외형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에서 볼 수 있듯, 균형형의 사회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이 한국인 편향형보다 다소 높았다.

〈표 14〉 한국사회 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에 대한 회귀분석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상수	2.683	.161		2.023	.262		1.923	.270	
연령대	.085	.048	.125†	.105	.046	.156*	.113	.046	.168*
거주기간	.003	.001	.227***	.002	.001	.187*	.002	.001	.166*
응답자									
베트남	.055	.087	.038	.104	.084	.072	.133	.084	.092
필리핀	.225	.096	.136*	.333	.092	.202***	.335	.092	.203***
국적									
일본	-.450	.106	-.302***	-.392	.102	-.264***	-.366	.102	-.246***
감보디아	.081	.106	.044	.120	.101	.065	.142	.101	.076
응답자학력	.079	.039	.115*	.043	.038	.062	.038	.037	.056
응답자									
취업 중	.096	.068	.077	.062	.065	.050	.053	.065	.042
취업상태									
과거 취업	.149	.078	.101†	.154	.075	.105*	.151	.074	.103*
가정 월소득	.026	.032	.038	.011	.031	.016	.007	.031	.011
취학자녀 유무	.034	.069	.025	-.023	.066	-.017	.003	.067	.002
한국어 능력				.136	.039	.160***	.134	.039	.158***
차별경험				-.106	.035	-.134**	-.104	.035	-.131**
한국인 교류 지지				.158	.043	.189***	.156	.043	.186***
모국인 교류 지지				.004	.041	.005	.000	.041	.000
교육및 서비스 수혜도				.013	.010	.059	.013	.010	.059
지원기관 이용 빈도				-.002	.023	-.004	-.003	.023	-.006
모국인 편향형							.077	.082	.060
한국인 편향형							.193	.092	.122*
균형형							.184	.087	.135*
F-value	6.178***			7.899***			7.114***		
R-Square	.136			.239			.251		
Adj R-Square	.114			.209			.216		
R-Square Change	.136***			.104***			.012†		

† p<.10, \* p<.05, \*\* p<.01, \*\*\* p<.001

국적: 중국(한족)기준, 취업상태: 취업경험 전무 기준, 연결망 유형: 소외형 기준

## (3) 사회적 관계 유형과 일상생활의 문제해결 유능감

일상생활의 문제해결 유능감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분석결과를 아래 <표 15>를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인구사회적 변인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취학자녀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감은 증가했다. 또한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문제해결 유능감이 높았다.

&lt;표 15&gt;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 유능감에 대한 회귀분석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상수	2.566	.180		1.743	.292		1.769	.303		
연령대	-.084	.054	-.104	-.050	.052	-.063	-.052	.052	-.064	
거주기간	.005	.001	.411***	.005	.001	.354***	.005	.001	.360***	
응답자	베트남	-.097	.098	-.057	-.053	.093	-.062	.094	-.036	
	필리핀	.077	.110	.038	.196	.103	.097†	.193	.104	.096†
국적	일본	-.260	.120	-.148*	-.159	.114	-.090	-.174	.116	-.099
	캄보디아	-.057	.121	-.025	-.035	.113	-.016	-.039	.114	-.018
응답자학력	.119	.045	.145**	.073	.042	.090†	.073	.042	.089†	
응답자 취업 중	.243	.077	.164***	.181	.073	.122*	.185	.073	.124*	
취업상태 과거 취업	.224	.088	.128*	.200	.083	.114*	.201	.083	.115*	
가정 월소득	.012	.036	.015	-.001	.034	-.001	.000	.035	.000	
취학자녀 유무	.133	.079	.080†	.067	.075	.040	.057	.076	.034	
한국어 능력				.215	.044	.212***	.214	.044	.211***	
차별경험				-.110	.039	-.118**	-.113	.039	-.120**	
한국인 교류 지지				.154	.048	.155***	.156	.048	.156***	
모국인 교류 지지				-.031	.046	-.033	-.030	.046	-.031	
교육및 서비스 수혜도				.020	.012	.076†	.020	.012	.075†	
지원기관 이용 빈도				.033	.026	.055	.033	.026	.055	
모국인 편향형							.001	.091	.001	
한국인 편향형							-.066	.103	-.035	
균형형							-.035	.098	-.021	
F-value	11.613***			12.770***			10.833***			
R-Square	.232			.342			.343			
Adj R-Square	.212			.315			.311			
R-Square Change	.232***			.110***			.001			

† p<.10, \* p<.05, \*\* p<.01, \*\*\* p<.001

국적: 중국(한족)기준, 취업상태: 취업경험 전무 기준, 연결망 유형: 소외형 기준

매개 변인을 보면,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한국인 교류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강할수록 일상생활의 문제해결 유능감이 증가했다. 또한, 지역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많을수록 문제해결 유능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유능감과 달리, 문제해결 유능감에서는 사회적 관계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제해결 유능감의 경우 사회적 관계 요인보다 인구학적 특성(연령, 학력 거주기간, 취업경력, 국적)과 매개 변인(한국어 능력, 차별경험, 지역자원 활용도, 가족지지)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 3) 사회적 관계 유형과 사회생활 참여도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유형에 따른 정기모임의 참여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균형형의 경우 1.5개로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수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모국인 편향형 1.4개, 한국인 편향형 1.3개 순이었고, 소외형은 0.8개로 가장 작았다. 다시 말해, 소외형 집단이 다른 유형 집단에 비해 사회생활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생활 참여도가 인구학적 특성 및 기타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사회적 관계 유형별로 여전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 16>에 나와 있다.

먼저, 사회 인구학적 변수를 살펴보면, 거주기간이 길수록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수는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 중국 한족에 비해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출신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일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정기 모임 수가 더 많았다. 매개 변인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에서 제공한 교육 및 서비스 이용 경험이 많을수록 정기참여 모임 수는 크게 증가했다.

한편, 사회적 관계 유형별 분석에서는 소외형 집단에 비해 다른 사회적 관계 유형의 정기참여 모임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를 비교해보면, 균형형 집단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은 한국인 편향형, 모국인 편향형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인구학적 특성 및 한국생활 경험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고도,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유형은 사회생활 참여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표 16〉 사회생활 참여도에 대한 회귀분석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상수	.438	.233		.014	.492		-.300	.505		
연령대	-.102	.087	-.081	-.059	.085	-.047	-.037	.085	-.029	
거주기간	.007	.002	.338***	.007	.002	.339***	.007	.002	.313***	
응답자 국적	베트남	.028	.160	.010	.122	.157	.045	.185	.157	.068
	필리핀	.588	.177	.190***	.619	.172	.200***	.628	.172	.203***
	일본	.235	.195	.084	.303	.191	.140*	.425	.191	.152*
	캄보디아	.526	.195	.152**	.506	.189	.146**	.556	.188	.161**
응답자학력	.033	.072	.072	.043	.070	.033	.033	.070	.026	
응답자 취업상태	취업 중	-.026	.125	-.011	-.134	.122	-.057	-.152	.121	-.065
	과거 취업	.303	.143	.109*	.205	.140	.074	.202	.139	.073
가정 월소득	-.004	.059	-.003	.036	.058	.029	.028	.057	.022	
취학자녀 유무	-.105	.126	-.041	-.167	.124	-.065	-.110	.125	-.043	
한국어능력				.046	.074	.029	.046	.073	.029	
차별경험				.005	.065	.003	.006	.065	.004	
한국인 교류 지지				-.060	.081	-.038	-.059	.081	-.038	
모국인 교류 지지				-.023	.077	-.015	-.029	.076	-.019	
교육및 서비스 수혜도				.113	.019	.270***	.111	.019	.266***	
지원기관 이용 빈도				.034	.043	.036	.032	.043	.034	
모국인 편향형							.311	.152	.130*	
한국인 편향형							.470	.173	.158**	
균형형							.442	.163	.172**	
F-value	7.473***			7.762***			7.157***			
R-Square	.158			.234			.251			
Adj R-Square	.137			.204			.216			
R-Square Change	.158***			.076***			.016*			

† p<.10, \* p<.05, \*\* p<.01, \*\*\* p<.001

국적: 중국(한족)기준, 취업상태: 취업경험 전무 기준, 연결망 유형: 소외형 기준

## IV.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형성하는 제반 사회적 관계의 양상을 살펴보고, 사회적 관계와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조사 대상인 결혼이주여성을 모국인 및 한국인과의 관계 비율에 따라 소외형, 한국인 편향형, 모국인 편향형, 균형형 등 네 가지 범주로 구분했으며, 이들 유형이 사회통합의 수준과 어떤 연관성을 보이는지 분석했다. 특히, 여기서는 사회적 관계의 지지효과를 단일하게 밝히는 기존 연구방식에서 벗어나 관계 유형별 차별화된 효과에 초점을 맞췄으며, 사회통합의 수준도 정서적 측면, 문화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다차원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연결망 크기가 결혼이주 이전에 비해 감소했으며, 세부 유형별로는 가족의 비중은 줄고, 친구 비중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사회 관계망 크기는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가장 의존하는 사회적 자원은 모국인 친구이고, 그 다음은 남편 가족이었는데 이는 모국인 친구와 남편 가족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통합에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유형은 인구학적 변수(거주기간, 연령, 학력, 소득 수준 등)와 매개 변수(한국어 실력, 차별경험, 가족의 지지, 자원활용도 및 서비스 기관 이용 빈도)를 통제한 후에도, 사회통합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먼저, 한국인 편향형은 사회통합의 세 측면 모두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인 편향형은 소외형에 비해 한국생활 만족도가 높았으며, 문화적 유능감(의사소통 유능감, 한국사회 적응·문화이해 유능감)과 사회활동 참여도(정기 참여 단체·모임 수) 역시 높았다. 균형형은 소외형에 비해 한국사회 적응·문화이해 유능감과 사회생활 참여도가 높았는데 그 효과는 한국인 편향형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인 편향형은 사회생활 참여도의 경우만 소외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해 몇 가지 점을 시사한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

하는 모국인 편향형(37.3%)이 사회통합 측면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보다 모국인 친구를 더 가깝게 여기는 성향이 강하지만(양옥경 외, 2007; 이용균 2007; 김영란 2007), 이들과의 관계는 한국생활 만족도나 통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인 이주자들 과만 관계를 맺을 경우, 사회 연결망을 확대하기 어렵거나 이들 사이에서 긴장감을 경험할 수 있는데(이민아 2010), 본 연구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비록, 본 연구가 사회적 관계의 크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한계가 있지만, 모국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사회통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기대만큼 크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가장 의존하는 사회자원이 모국인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국사회 적응이나 유능감을 발전시키는데 유용한 자원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서 모국인들 상호간의 관계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하여는 심층 면담 등 질적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인 편향형이 한국 생활만족도나 문화유능감, 사회적응 능력, 사회생활 참여도 등 여러 분야에서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Berry(1977)의 이민자 연구에서는 출신국 및 이주국 주민과 골고루 관계를 맺는 균형형이 통합에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편향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사회통합에 가장 긍정적인 유형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대상이 결혼이주여성이며,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 관계가 가족단위의 이주자들과는 달리, 남편 가족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관계 구성중 남편 가족 비중이 채 1명도 되지 못한 모국인 편향형 집단의 한국생활 만족도가 소외형과 더불어 가장 낮게 나온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인 가족에 대한 정부 정책이 질적으로 제고되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셋째, 균형형과 사회적 참여도간의 강한 관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기 모임 수로 측정된 사회활동 참여도에서는 균형형이 다른 유형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형은 모국인과의 관계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인과의 가교적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고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정기 모임이나 단체 참여도가 가장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자원과 정보원을 풍부히 지닐 수 있는 집단임을 의미한다.

사회활동 참여도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의 능동적 참여 주체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 조사 응답자들은 대부분 친목단체나 동호회, 종교활동, 학부모 모임을 제외하곤, 사회활동 참여도가 낮았으나, 다양한 모임에 대한 향후 참여의사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언어 문제나 한국 내 사회적 관계가 적어 소외형이 되기 쉬운 초기 결혼이주여성(특히 베트남, 캄보디아)의 경우 다양한 모임을 활용한 사회적 관계 확장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과 통합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통합 변인군인 한국생활 만족도, 문화적 유능감, 사회활동 참여도 등에 인구학적 요인 외에도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의 차별경험(부적 관계), 그리고 한국인과의 교류에 대한 가족 지지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한국사회에서 차별 경험이 적을수록, 그리고 한국인과의 만남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이들의 한국생활 만족도도 높았으며, 의사소통 및 문화이해 유능감, 문제해결 유능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한국인과의 교류에 대한 가족의 지지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자 상당수는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모국인 친구보다는 한국인과의 관계형성에 더 강한 욕구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즉, 절반 정도가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인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특히 모국인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 출신 응답자의 경우 한국인 친구나 이웃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강했다. 이러한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실,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지역사회복지관, 이주여성 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사회기관은 각종 교육 및 행사프로그램이

한국인과 이주자들간의 일방적 관계가 아닌 쌍방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정부가 그동안 많은 재정을 투입해 이들에게 공급해온 각종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에 기대만큼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종 이민자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빈도나 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한국생활만족도나 문화유능감 등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주로 초기 이주자들을 겨냥해 한국어 교육에 집중돼 있는 한계가 있고, 결혼이주여성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은 적기 때문이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성도 대부분 떨어지게 된다. 회귀분석에서 교육 및 서비스 수혜경험이 이들의 정기적인 모임과 상관관계가 나타난 점은 일정부분 긍정적이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화하고,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할을 강화해 이들의 사회통합에 유용한 내용과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을 해본 경험’이 사회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일을 해보았거나 현재 일하는 여성들은 일 경험이 없는 여성들에 비해 의사소통이나 문화이해 유능감, 문제해결 유능감이 높으며, 사회생활 참여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과 일본 출신의 경우 일자리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들의 정기모임 참여도 역시 높았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은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를 모국인과 한국인간의 비율과 양자 간의 균형의 관점에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그러한 여러 유형이 한국사회와의 통합에 있어 어떤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시도한 유형화는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의 양적 구성에 의하여 구분한 것으로 관계의 질적인 측면, 즉 친밀도나 교류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또한 결혼

이주여성들의 국적에 따른 연령별, 지역별 구성 등에 대한 모집단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집단에 대한 임의표집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연구결과 나타난 해석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님을 밝힌다.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거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 관계는 더욱 확대되고 다양화될 것이며 사회통합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관계의 확장방식, 관계의 질적 측면 등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영란 (2007). “이주여성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 : 43-95.
- 김이선 · 정해숙 · 이정덕 (2010). 『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Ⅳ) :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 · 민무숙 외 (201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현숙 · 김희재 · 오중환 (2010).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의  
질의 관계”. 가족과 문화 22(3) : 97-127.
- 민무숙 (201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본 사회통합의 가능성”,  
다문화사회 정책과 사회통합의 미래, 제 71차 여성정책포럼 자료집,  
79-112.
- 박미정 · 엄명용 (2009).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 1-26.
- 설동훈 · 서문희 · 이삼식 · 김명아(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 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 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 양옥경(2007).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지원방안.” 서울  
정책 포커스 27: 1-20.
- 이민아 (2010). “이민 전 · 후의 연결망이 결혼이민자 여성의 심리적 안녕  
감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27: 31-60.
- 이용균(200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  
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 35-51.
- 정성미(2010).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정민(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내 심리적 문화적응기제와 적응형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성열(2003). “한민족 통합을 위한 문화 적응 모델 수립 : 기존의 문화 적응  
모델에 대한 비판적 재고”. 성곡논총 34(上) : 509-552.

- 황정미 (2010). “결혼이주 여성의 사회연결망과 행위전략의 다양성 : 연결망의 유형화와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4): 1-38.
- Berry, John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Berry, J. W., and Kim, U (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 P. R. Dasen, J. W. Berry, & N. Sartorius(eds.),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Toward applications*(pp.207-236). Newbury Park, CA: Sage.
- Berry, J. W., Poortinga, Y.,H., Segall, M.H., & Dasen. P.R.(2002). *Cross-Cultural Psychology-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 Berry, J. W., & Sam, D. L. (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J. W. Berry, M. S. Segal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pp.291-326): Vol. 3, Social behavior and applications.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Frone, M. R., Russell, M., & Cooper, M. L. (1992).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Testing a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 65-78.
- Hagan, J.M. (1998). Social Networks, Gender, And Immigrant Incorporation: Resources and Constrai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55-67.
- Lin, Nan. (2000). Inequality in Social Capital. *Contemporary Sociology* 29(6), 785-795.
- Lin, Nan. (2001). Building a Network Theory of Social Capital. In Lin, N., Cook, K, & Hawthorne, R.S.B. (eds.),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pp.3-30). New York: Aldine de Gruyter.
- Putnam, R. D. (2007). E Pluribus Unum : Diversity and Commun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 The 2006 Johan SKytte Prize Lecture.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0(2), 137-174.

ABSTRACT

**A study on social relationships of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its implications for social integration**

Min Moosuk\* · Kim Yison\*\* · Joo Yoosun · Lee Jungye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social relationships of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seek ways for developing the relationships that may have positive impact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 immigrants. Through comparison of personal and familial characteristics of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ypes of their social relationships, this study also aims to specify policy tasks at the level of social relationships and to suggest ways for providing customized support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 of each group.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a sample 540 married-based immigrants from China, Vietnam, Japan, and Cambodia who reside in the area of Gyeonggi and Chungcheong provinces.

Based on the size of social networks of female marriage-based immigrant and its relative proportion of Koreans and ethnic people, this study divided them into isolated group, Korean-biased group, ethnic people-biased group, and balanced group.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isolated group had a consistently low social cohesion level compared to other groups of social relationships, and ethnic group-biased group was not much

---

\*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msmin@kwdimail.re.kr)

\*\*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yskim@kwdi.re.kr)

different from isolated group with a low social integration level. Because of the specificity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who come to Korea all alone unlike family-based immigrants, Korean-biased group showed a comparatively high level of satisfaction with life in Korea and competency of communication compared to other groups. Balanced group had the highest level of social participation. This suggests that this group is advantageous in holding rich social resources and information sources. It was also found that female marriage-based immigrant's Korean language skill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nd family members' support for their social relationships with Koreans had important impact on their social integration. On the other hand, the frequency of their using support centers and various types of local resources had less significant impact on their social integration than expected.

**Key words** : Marriage-based immigrants, Types of Social relationship, Discrimination experiences, Satisfaction with the south korea life, Social integration

